

보낸 사람: [모비프레대표이사](#)  
받는 사람: [wylee726@m-i.kr](#); [hmbok@m-i.kr](#); [parkssem@m-i.kr](#); [choice@mk.co.kr](#); [dorabono@mk.co.kr](#); [haneul96@gmail.com](#); [ocj2123@mk.co.kr](#); [bozzang@mk.co.kr](#); [story567@mk.co.kr](#); [sdchaos@mk.co.kr](#); [boyondal@mk.co.kr](#); [yykim@mk.co.kr](#); [smyoon@hankyung.com](#); [taehun@hankyung.com](#); [jran@hankyung.com](#); [leeswoo@hankyung.com](#); [dolph@hankyung.com](#); [gychu@hankyung.com](#); [thkim@wowtv.co.kr](#); [kaki1736@wowtv.co.kr](#); [munsp33@wowtv.co.kr](#); [osyoo@wowtv.co.kr](#); [kfk9@hankyung.com](#); [sesung@hankyung.com](#); [hana@hankyung.com](#); [derrida@sed.co.kr](#); [hanul@sedaily.com](#); [jminj@sedaily.com](#); [kbg@sedaily.com](#); [chopin@sedaily.com](#); [sarok@sedaily.com](#); [mingu@sedaily.com](#); [jikim@sedaily.com](#); [cafe9@fnnews.com](#); [elkim@fnnews.com](#); [ronia@fnnews.com](#); [jjoony@fnnews.com](#); [syj@fnnews.com](#); [app@mt.co.kr](#); [saint@mt.co.kr](#); [joon@mt.co.kr](#); [hilee@mt.co.kr](#); [sjw@mt.co.kr](#); [dandi@mt.co.kr](#); [jiji@heraldm.com](#); [yuni@heraldcorp.com](#); [bonsang@heraldcorp.com](#); [jaylee@asiae.co.kr](#); [letmein@asiae.co.kr](#); [ahn708@asiae.co.kr](#)  
참조: "손경식 회장"; [yoyo0927@cj.net](#); [jy.kong@cj.net](#); [yongkyu.lee1@cj.net](#); [cheolwoong.lee@cj.net](#); [jaehee.youn@cj.net](#); [inhwan.ryu@cj.net](#); [hj.kim131@cj.net](#); [seokyong.lee@cj.net](#); [changgil.kim@cj.net](#); [chanwoo.park@cj.net](#); [sr.oh@cj.net](#); [chunkyu.park@cj.net](#); [ka.chang@cj.net](#); [hanjin.park@cj.net](#); [hanna.hwang@cj.net](#); [jhlee@cj.net](#); [gyung@cj.net](#); [yj.im@cj.net](#)  
제목: 홍의락 의원은 CJ의 갑질을 왜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가? 말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날짜: 2018년 10월 21일 일요일 오전 2:11:34

---

안녕하세요?

저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입니다.

아래는 홍의락 의원과 대화녹음파일로 홍의락 의원실에 공개통보를 하였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예정되던 10월 20일 자정에 모비프렌 홈페이지에 공개 했습니다.

CJ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홍의락 의원의 태도로 분노로 인해 말도 더듬고 대화중에 눈물의 호소를 했지만 말을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모비프렌 홈페이지에 공개된 홍의원과의 녹음파일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받아온 2500여명의 서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비아냥만 들었습니다.

18년된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백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에 내몰릴 지경인데도,

이재현 회장의 국감장 증인 신청한 모비프렌 본사가 있는 구미 장석춘의원에게 이 건은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채택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가 기업과 기업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CJ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홍의락 의원은 정말 왜 이러실까요?

저희 회사는 블루투스 이어폰 전문기업으로 CJ에 독점판매권을 준 계약으로 인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는 CJ가 계약금액된 월 구매금액 3억3000만원의 20%정도인 6000만원을 구매만 해 갔습니다.

모비프렌은 전체인력 100여명 중 53명은 삼성스마트 폰 검증 업무를 하고 있고, 관리직을 뺀 나머지 인력이 블루투스 종사자로 월 인건비만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은행대출로 회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용등급까지 3단계 떨어져 9월 만기도래 대출연장 불가통보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없이 보낸 메일, 등기서신,내요증명 구두 호소에도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지만, 문재인 신청부가 들어서고 대기업 갑질이 이슈화되자 17년 4월 매출 제로(0원)이던 것을 5월에 7억 5000만원을 구매해 갔습니다.

2016년 저희회사에 쉼어있던 재고도 한번에 가져갔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상반기 계약미이행분 포함 계약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해간 물건을 팔지않고 75억원어치나 CJ 창고에 쌓아놓고 유통망을 완전히 붕괴시켜 놓

아 금년 12월 계약만료가 되면 회사가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2년에 걸쳐 구축해 왔던 1000여개의 판매점이 완전히 사라져 새로이 구축을 해야 합니다.

CJ로 총판권이 넘어간 후 저희 기존 거래처를 CJ가 계약 한달만에 정리한 관계로 그 분들과의 관계도 소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장 판권을 돌려 받으면 블루투스 매출이 4000만원 선이 예상이 됩니다.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된 회사가 도산에 직면하여 7월 1일에 취임한 CJ ENM 허민회 대표에게 수차례 도움요청도 철저히 외면당해 CJ 이재현 회장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룹상생의 책임자인 씨제이(주) 공동대표인 손경식 회장 김홍기 부사장께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이버 제보도 하였지만 어떠한 답변도 연락도 없습니다.

부득이 9월 4일 청와대 국민청우너에 [CJ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CJ의 甲질 문화를 고발합니다.](#) 라고 올렸드니,

CJ는 자기들이 갑질을 해놓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뉴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허위주장과 유포는 자기들이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인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2016년 미래부 장관상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저희 모비프렌을 완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CJ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 계약서, 2017년과 2018년에 이재현 회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서, 2018년 CJ ENM허민회 대표로부터 받은 계약해지 카톡문자, 홍의락 의원과의 대화녹음 파일 등 자세한 내용은 모비프렌 홈페이지([www.mobifren.com](http://www.mobifren.com))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도움을 받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집권여당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벌써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며,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심한 모멸감에 회사가 잘못되면 CJ 그룹본사에서 활복을 하겠다는 결심을 홍의원실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배포한 뉴스는 나오지도 않고, 그나마 저와 인터뷰한 홍의락 의원과의 대화녹음 파일을 들었다는 신화통신 기사가 오전에 올라왔다가 오후에 삭제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나를 희생하는 것은 개죽음으로 저희 가정과 회사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문제가 국감기 끝날때까지는 국회업폐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CJ그룹 본사정문에서 매일 10시간 이상 평일은 1인 시위를 하고

야간과 주말/공휴일은 회사업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래의 메일을 10월 5일 눈물로 써서 홍의락 의원실에 보낸고 폭우속 10시간 1인 시위를 아침과 점심을 하였습니다.**

홍의원의 반대로 이재현 회장의 국감장 증인 채택이 안되면 10월 10일을 D-day로 홍의락 의원 사무실에서 CJ ENM PD(고 이한빛)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홍의원실에 메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앞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 정말 슬펐습니다.

### 홍의락 의원실에 보낸 눈물로 쓴 메일

From : [jwheo@mobifren.com](mailto:jwheo@mobifren.com)

To : <[didimimi22@naver.com](mailto:didimimi22@naver.com)>, <[caesar1105@naver.com](mailto:caesar1105@naver.com)>, <[isc5708@hanmail.net](mailto:isc5708@hanmail.net)>, 백은상 장의원 보좌관

<[lqbackgom@naver.com](mailto:lqbackgom@naver.com)>, <[hsjeong@mobifren.com](mailto:hsjeong@mobifren.com)>

Cc :

Sent : 2018-10-05 07:22:26

Subject : [FW] Cj 주장 및 모비프렌 반박 자료와 증거 자료(변호사 제출용)

어제 CJ 주장의 반박자료와 증거자료를 정리하면서 참 힘들게 2년여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방대한 자료의 작성이 대부분 새벽이 많이 보내졌음도 알았습니다.

금년 3월 4월, 오라인을 우리가 가져오고 난 다음부터는 CJ의 비협조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해서는 안될.....

중간 중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리하는 마지막 자료가 될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CJ때문에 글쓰는 습씨와 자료작성도 엄청 잘 하게 되었다는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참석을 우기해 새벽에 일어나 교회로 향하는 기리에 하늘은 흐리지만 참 상쾌한 공기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옴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찬송가는 차마 따라 부를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형통하게 하시네"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어제 아침에 걱정하는 아내에게 이재현 회장 반드시 국감 증언대에 설거라고 호언장담하며

그러면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유명연예인도 우리 모델로 이재현 회장이 약속할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내 꿈이 이뤄질거다.

이게 잘 정리되면 내년에는 당신 회갑이고 하니 1월이나 2월에 약 20일에서 30일간 해외 여행을 멋지게 가지고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발게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마음 고생 그동안 많이 하게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자료정리를 하면서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Cj 측에서 허위보도를 인정 함 ->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57> 를

클릭하니 기사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재현 회장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지 그외에 어떤 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더욱 다짐을 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 김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처럼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체택을 하든지, 나의 목숨과 홍의의의 정치생명을 선택하든지 밖에 없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재현 회장은 반드시 국감

장 증언대에 세워야 했던 것은 확고한 결단도 하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저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단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오래전 부터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과 딸들의 얼굴,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직원들의 모습이 떠 올랐습니다.

그래서, 홍의락 의원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의님이 저의 제안을 거절하고 받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홍의원님의 운명이고 저는 저의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 제출용 자료를 위의 수신자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는 길에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홍의원님께 대한 미움도 없어 졌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홍의원님을 원망하며 메일과 문자를 보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결과가 오던 홍의원님도 용서를 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춘 의원님,

저는 장의원님을 만난 것이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힘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인 신청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제가 어제 "장의원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홍의원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증인체택을 반대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장의원님, 항상 지금까지와 같이 불의에 맞서는 훌륭한 의원이 되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전무,

지금의 이 메일은 정 전무께만 보냅니다.

직원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니깐요.

일이 잘 풀리면 공개하지 마시고 잘 안 풀리면 공개 하세요. 직원들에게 믿어 주고 따라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정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대는 잘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신 명예훼손 고발은 오늘 중 고소장 접수되게 해 주세요. 공정위 고발도 변호사님께 특별히 부탁하여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 주어서 고마워요.

이 메일을 작성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지만, 이제는 깨끗하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 하렵니다.

남이사가 사무실로 왔네요.

눈물 보이면 안되는데.....

슬픈 모습 눈물 흘린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 내려 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렵니다.

나의 목숨은 내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게 슬프지만, 미움이 없어서 참 감사하네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드림.

허주원/대표이사

Juwon Heo / CEO

(주)모비프렌

MobiFren Co.,Ltd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 Korea 730-300

Mobile : 010-7352-5270

Mobile :+82 10 7352 5270

Tel : 054-474-2220

Tel : +82 54 474 2220 (ext.400)

Fax : 054-474-2251

Fax : +82 54 474 2251

E-Mail : [jwheo@mobifren.com](mailto:jwheo@mobifren.com)

Email : [jwheo@mobifren.com](mailto:jwheo@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http://www.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http://www.mobifren.com)

(주)모비프렌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Korea  
(삼영빌딩 3층)

MobiFren Co.,Ltd, Seoul Office  
3F,Samyong Bldg,437,Teheran-ro,Gangnam-gu,Seoul,

TEL : 02-336-2220

TEL :+82-2-336-2220

(주)지티텔레콤이 (주)모비프렌으로  
Telecom changed to MobiFren

Please be noted that the company name of GT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All the other information are the same as before.